

세미나 초록

<p>발표주제</p>	<p>성공한 CEO가 되기 위한 Clever Underdog</p>
<p>발표내용</p>	<p>내가 사업본부장 시절, 누군가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나에게 '성공하였냐?'고 질문을 하였다. 나는 벼락을 맞은 듯 답을 못하고 말았다. 주변에서는 모두 그만하면 젊은 나이에 입지를 굳혔으니 성공한 편이라고 하였으나 나는 그때부터 '성공이란 무엇일까?' 또 '성공하려면 어찌해야 할까?'를 골똘히 생각하고 정리해 보았다. 그런데 내가 만나본 소위 성공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이 있었다. 열정passion, 확신과 신념confidence, 책임감responsibility, 창조력creativity, 도전정신challenge이 그것이었다. 그 중 첫째가 열정이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열정을 일으킨다. 열정은 힘의 원천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용기를 불어주어 계획한 일을 실천하게 한다. 열정은 자신에게 꾸준한 동기를 부여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에 미치도록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p> <p>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어떤 일이든 성공하기가 어렵다. 막연한 목표는 우연을 통한 행운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먼저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세부적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라.</p> <p>CEO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까? 업종과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이 달라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CEO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리더십'을 들고 싶다. 그러나 리더십은 반드시 전문가적인 자기 소양을 갖춰야 한다. 직업의 종류나 시대적 환경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소위 'Pro'가 되어야 한다. 노력하고 실천하고 실력을 쌓아 자기것이 된 '지식'을 기반으로 전문가가 되어 리더로서 소통하며 혼자가 아닌 팀웍으로 술선하고 앞장서야 한다. 창업이던 전문 CEO던 경영이란 궁극적으로 사람을 관리하는 일이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20~50대까지 각 연령별로 우리가 준비하고 이뤄나가야 할 것을 착실히 쌓아나가는 것이 Elite가 기회를 선점하는 'Winner take it all' 이 아닌 범인으로서 성공한 CEO가 되는 길이다.</p> <p>세상에 공짜는 없다. 성공은 노력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때이다. 지금 당장 우리는 Clever Underdog이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천할까 같이 생각하고 시작하자.</p>